

숨결이 조각이 될 때

December 1, 2017 | 김슬기 기자



독도의 지질학적 환경을 표현한 '리미누스'.

숨결이 조각이 될 때

재미동포 작가 마이클 주 개인전
독도에서 작업한 연작 선보여



재미동포 작가 마이클 주(51)의 '독도 상륙 작전'은 험난했다. 지난해 여름 포항에서 울릉도로 가는 배편은 6번이나 취소됐다. 울릉도에서 독도로 출항했지만 민간인은 20분밖에 상륙허가가 나지 않았다. 캔버스에 독도 지면을 탁본해 담으려면 72시간이 필요했던 그는 힘겹게 24시간만 체류허가를 받아 섬에 상륙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폭풍이 불어왔다. 섬에 강제로 나오거나 발이 묶이게 된 것. 유일한 거주자인 김성도 선장 집 주방에서 밥술과 함께 새우잡을 하면서도 그는 파수꾼처럼 폭풍에 캔버스가 날아갈까 봐 눈을 떼지 못했다.

국제갤러리 K2관 2층에 걸린 14점의 실크스크린 연작 '리미누스(Liminus)'는 독도에서 뉴욕을 거쳐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기까지 2만5000km 넘는 여정이 녹아 있는 작품이다. 리미누스는 한계를 뜻하는 라틴어 '리미널(Liminal)'과 빛을 뜻하는 '루미누스(Luminus)'를 합성한 말. 마이클 주는 합성수지를 독도 지면에 바르고 그 위에 캔버스를 놓아 독도의 화산암과 나뭇가지, 새의 깃털, 곤충까지도 탁본했다. 뉴욕의 공장에서 이 캔버스에 질산은을 덧칠해 거울처럼 은빛으로 빛나면서도 지면의 생생한 요철이 도드라진 작품으로 완성했다.

연작과 함께 거주자인 김 선장 부부의 인터뷰 음성과 동도와 서도의 경계에서 포말을 일으키며 부서지는 파도를 담은 영상도 나란히 놓았다. K3관에 설치된 모빌에는 독도의 화산석과 돌을 채집해 만든 거대한 모빌도 설치됐다. 독도는 그렇게 관람객들에게 시각과 청각과 촉각의 다채로운 감각으로 찾아온다.

국제갤러리에서 12월 31일까지 마이클 주의 개인전 '단회흡흡법(Single Breath Transfer)'이 열린다. 10년 만에 국내에서 열리는 대규모 개인전이다. 마이클 주는 미국의 탄광, 북아프리카 지역의 화석층 등 지질학적·생태학적 고유성을 지닌 장소를 탐구하는 작업을 오랫동안 해온 작가다. 이번 전시는 지난 2년간 뉴욕, 독도, 한반도 비무장 지대(DMZ) 등 지역에서 연구하고 작업한 회화, 조각, 설치물 망라한 신작 30여 점을 선보인다.

30일 만난 작가는 "독도는 새들과 거친 바람을 만날 수 있는 아름다운 섬이었다. 한일 갈등이라는 정치적 맥락이 아니라 언제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유동적 정체성을 지닌 장소로서 독도를 담고 싶었다"고 말했다.

K2관 1층에 들어서자마자 만날 수 있는 이번 전시의 표제작 '단회흡흡법'은 의학 용어를 빌려와 제목을 달았다. 작가가 내신 날숨을 조각으로 형상화한 12점짜리 연작이다. 종이·비닐봉투에 숨을 불어넣고 절소기스로 이를 열려 유리조각으로 만들었다. 핵폭탄의 버섯구름처럼 보이기도 한다. 작가는 절나의 행위가 일으키는 화학적인 변화에 주목해 보이지 않는 것들에 물질적인 의미를 부여한다.

생물학도에서 미술작가로 전환한 마이클 주는 뉴욕 현대미술관 PSI 기획전, 미국 워트니미술관 재개관전 등에서 개인전 및 단체전을 치르며 국제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작가다. 2001년 베니스 비엔날레에 한국관 대표 작가로 초대됐고, 2006년 광주비엔날레에서는 대상을 받을 만큼 한국과도 인연이 깊다.

(02) 735-8449

김슬기 기자